

광주시, 메타버스 신산업 본격 육성 나섰다

24개 기관·기업들과 상호협력 AI중심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16대 중점과제 발표

광주시가 미래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도할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시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AI-메타버스 융합도시 광주' 비전을 제시하고, 24개 기관·기업들과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기반으로 지능형 메타버스로의 기술 전환을 이뤄 메타버스 융



지난 2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이 열렸다. /뉴스스

합신사업 창출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4대 추진전략은 ▲AI 중심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 ▲메타버스 선도형 기

술 개발 및 실증 ▲메타경제 생태계 구축 ▲시민과 기업 중심의 융합 신산업 확산 등이다.

16대 과제는 'AI 중심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AI-메타버스 실증

도시 조성,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특화센터 구축, 세계 최고 수준 AI-메타버스 첨단 실증장비 구축, 주력산업 & 공공서비스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의료헬스케어, 친환경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 문화콘텐츠, 제조 등 5대 대표산업을 메타버스와 융합하는 산업 특화형 메타버스와 교육, 행정의 2개 분야에서 시민체감형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5+2의 AI-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각 산업 분야에서 시민 요구를 반영한 메타버스 융합비즈니스 모델을 기업과 함께 발굴, 추진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광주=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상주시가 스마트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창업보육센터 간담회 상주시, 교육생 20명 참여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15일(월)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20여 명과 공감·소통 간담회를 열어 성공적인 창업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청년창업보육센터는 2021년 하반기부터 44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최신 스마트농업 교육을 통한 첨단 농업전문가를 육성하고 전후방 산업 인재를 양성한다.

강영석 상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 지원정책, 상주시 정착 방안, 교육 중 애로사항 등 교육생 서로가 허물없이 소통하고 상주시가 첨단 농업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2021년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경북의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15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경북, 농가매출 58억 달성 상생협력 경진서 최다수상

농가 판로확보·소득안정 기여

'2021년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경북이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해 매년 모범이 되는 기업과 단체 10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안동제비원전통식품은 최명희 식품명인(51호, 장류)이 전통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된장, 고추장에 쓰이는 콩과 고춧가루 100%를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로 조달하면서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양질의 원료 확보로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19개 농가와 계약을 맺고 연간 콩 254t, 고춧가루 52t을 수매해 5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우수상을 받은 네이처팜은 청도지역의 감을 활용한 반건시, 감말랭이, 아이스홍시 등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청도감의 7%를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해 수매함으로써 농가 판로를 확보했다. 또 버려지는 감껍질과 풋감(숙아닌 감)을 구매해 상품으로 개발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처음학교로' 활용 내년도 유아모집

광주시교육청, 279개원 동참

광주시교육청 전체 공·사립유치원 279개원이 지난 1일부터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2022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입학 희망 유치원을 선택하고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선발되는 윈스톱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음학교로'는 사회적 약자의 공립유치원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우선모집(11월1~10일)과 일반모집(11월17~29일)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일반모집에 자동으로 연계 접수된다.

우선모집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

/광주=김태우 기자 ts7080@

(3순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4순위에 포함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등은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원장 재량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의 경우 4순위 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권 보호를 위해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전담보건교사가 배치된 공립단설유치원은 건강취약유아의 경우 의무적으로 4순위에 포함시켜 우선모집 대상이 되도록 했다. 단,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거나 초등학생 수가 많아 보건교사의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건강취약유아의 4순위 포함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공립유치원 130개원 중 56개원(43%)이 건강취약유아를 우선모집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통계조사 공무원 등 기재부장관상 수상

영양군, 공무원 2명 조사요원 4명

영양군에서는 통계조사 담당공무원 2명 및 우수 조사요원 4명이 통계청 주관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통계조사 담당 공무원 2명 및 조사요원 4명(관리요원 3명, 조사원 1명)이 통계청 주관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포상'의 유공자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상 및 통계청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2021 경제총조사 등 3대 대규모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공자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인인구 및 농업종사인구 등이 많은 점, 새로운 감염병의 확산 등 인터넷 조사 및 현장 대면조사 모두 열악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양군의 우수 조사요원들은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불응설득,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적극적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조사요원들이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협조해주신 군민과 사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규모 통계 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통계자료가 영양군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영암군, 전통한옥서 공연·체험행사

판국·구정놀이 등 공연 열려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13일 군서면 구림마을 전통한옥에서 공연·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여섯마당 중 '얼음줄타기', '액운을 막고 건강 행복 안녕을 기원하는 문굿과 비나리, 태평소 시나위, 나라의 태평성대와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태평무, 사물악기와

상모를 쓰고 진법을 행하며 연주하여 각 악기의 개인놀음을 하는 판국과 구정놀이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영암 구림마을은 2,2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있어 자연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기찬마을축제 19일 개최 영암읍 5일시장 공연장서

영암5일마켓 '기찬마을축제'가 오는 19일(금)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영암읍 5일시장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축제에서는 1부 개막식에 지역품물패 소리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2부에서는 색소폰, 팼제라, 7080디제이 등 섭외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커피 달고나, 영암도기박물관 판매장, 지역농특산물판매장, 맛있는 포차, 연탄불 돼지갈비, 갈떡갈떡, 기찬분식, 기찬언니들, 청년몰 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플라마켓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축제 주최측은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소독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여자 중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축제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